

John Calvin의 윤리사상 연구

Ethical Thought on John Calvin

김 지 호
(조직신학)

目 次

I. 들어가는 말

II.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

1. 신학적 윤리학의 개념
2. 칼빈에게 신학적 윤리학이 있는가의 문제
3.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

III.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의 원리

1. 윤리적 인식의 근거인 성경
2. 하나님 중심적 윤리
3. 그리스도 중심의 윤리
4. 성경지배의 윤리
5. 성경해석을 중요시한 윤리

IV.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의 특징

1. 자기부정
2. 십자가를 지는 것
3. 감사와 복종
4. 내세의 삶을 명상함
5. 현재의 삶을 활용하는 방법

V. 마치는 말

1. 요약
2. 제언

Bibliography

I. 들어가는 말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시점에 이르렀다. 한국 기독교가 직면한 위기의 배후에는 교회의 대 사회적 공신력의 추락과 한국 기독교의 문화적 수용력과 변혁 능력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¹⁾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에 필요한 신학의 분야가 기독교 윤리학이라 사료된다.

기독교 윤리학이야말로 신학을 형이상학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으며, 교회로 하여금 그 교회가 자리한 맥락(context)에 충실하도록 돕는 신앙적 학문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윤리학은 우리의 신앙적 삶을 하나님의 계시의 빛에 비추어서 반성하고 나아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획하는 신앙의 학문이다.²⁾

이와 같은 차원에서 기독교 윤리학의 연구는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그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요청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 기독교 윤리는 윤리의 규범과 상황 내지 맥락(연관)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발전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에 걸쳐서 규범 윤리학자와 상황 윤리학자 사이에 있었던 “규범-맥락 논쟁(norm-context debate)”이었다.³⁾

이것은 바로 규범 윤리와 상황 윤리 내지 맥락주의 윤리 사이의 관계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이미 기독교 윤리의 역사에서의 규범주의와 윤리 해방국 사이의 갈등과 긴장 관계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초대교회 이후 전개된 기독교 윤리의 본질적인 과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윤리는 율법주의(legalism)와 도덕폐기론(antinomianism)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⁴⁾

1) 손봉호, “크리스찬 윤리실천의 현장을 본다” 「월간목회」, 200년 5월호, pp.58-63.

2) J. Philip Wogaman, *Christian Ethics A Historical Introduction*. 「기독교 윤리학의 역사」, 임성빈,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2000), p.5.

3) 고범서, *사회윤리학*, 한림과학원 총서 16권, (나남, 1993), p.22.

4) James M. Gustafson, *Ethics from a Theocentric Perspective*, Vol. 1 (The University of

현대에 들어와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윤리(situation ethics)는 전통적 규범과 원칙을 거부하는 도덕폐기론의 현대적 이론이다. 그리고 온건한 맥락주의(Moderate Contextualism)는 율법주의와 도덕폐기물 사이에서 최상의 종합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논의되는 포스트모던 윤리학(postmodern ethics)은 상황윤리로 대변되는 급진적 맥락주의의 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궁에 빠져있다. 특히 플레처(Joseph Fletcher)의 “「상황 윤리」(「situation ethics」)”⁵⁾의 영향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혼돈 속에서 참된 기독교적인 윤리의 표준과 판단을 잃어가고 있다. 상황 윤리와 같은 현대 윤리학에 기초를 제공한 다양한 신학들, 특히 자유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영향은 우리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생명공학의 발달로 자연적인 유전자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이제 신의 영역을 침입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신학이 기독교인의 삶의 문제를 명료하게 다루어 올바른 기독교 윤리의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야 21세기의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다.⁶⁾

논자는 기독교 윤리의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윤리적 규범을 강조하는 칼빈(John Calvin)의 윤리사상을 살펴보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칼빈의 윤리가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 신학적 윤리의 의미와 그의 신학적 윤리의 원리를 조사함으로써 칼빈의 신학적 윤리의 틀을 확인하고, 그의 신학적 윤리의 원리들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그의 신학적 윤리학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논문의 연구방법은 「기독교 강요」와 윤리와 관련된 주석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윤리학의 다양한 주제로서 노동, 정의, 경제, 생명, 환경, 정치 등등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겠음을 밝혀둔다.

Chicago Press, 1981), p.1.

5) Joseph Fletcher, *Situation Ethics: The New Morality* (philadelphia : Westminster), 1966.

6) 안명준,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 『조직신학연구』 2002, 창간호, p.11.

II.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

스토크(H. G. Stoker)는 “칼빈의 윤리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이다”⁷⁾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이 무엇인지, 또 그의 신학적 윤리학의 방법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학적 윤리학에 대한 정의와 칼빈에게 신학적 윤리학이 있는지 그리고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의 정체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신학적 윤리학의 정의

신학적 윤리학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몇 사람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포쉬너(M. Forscher)는 신학적 윤리학을 신의 의지와 일치 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인간 행위의 도덕적 성질을 판정하는 규범윤리학의 모든 이론이라고 정의한다. 즉, 신학적 윤리학은 모든 유한한 피조물이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적 의지의 입법적 권위에 의지해서 도덕 원칙과 그 정당화 가능성에 관한 물음에 대담으로 본다.⁸⁾

스웨제이(C. M. Swezey)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면을 중요시 하면서 말하기를 신학적 윤리학은 하나님의 활동적인 힘과 임재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규칙에 대해 의식적으로 응답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말한다.⁹⁾

명신홍 박사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도덕 생활을 아는 궁극적 교훈을 찾게 된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서 신학적 윤리학을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그의 계시를 진리의 궁극적 권위로 인정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내용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¹⁰⁾라고 정의한다.

김영환 교수는 말씀을 윤리의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7) H. G. Stoker, *Calvin and Ethics in Jhon Calvin : Contemporary Prophet* edited by Jacob T. Hoogstra(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59), p.127.

8) Otfried Hoffe, 「윤리학 사전」 임흥빈의 2인공역 (서울 : 예영, 1998), p.265.

9) “Theological Ethics,” *Encyclopedia of the Reformed Faith*, ed. Donald K. McKim (Louisville :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10) 명신홍, 「개혁파 윤리학」 (서울: 신망에 출판사, 1971), p.13.

양심의 자유로운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개혁 신학의 윤리를 말한다¹¹⁾고 했다.

또한 어떤 이는 “철학이나 일반 윤리에서는 가치관과 선악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신학적 윤리학에서는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그 초점이 맞춰진다. 그 선이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명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반철학 윤리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등의 이론에 기반을 두어 인간의 양심과 행위에 초점을 두고,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한편 신학적 윤리학은 하나님의 계시와 신앙에 역점을 두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는 학문이다. 물론 신학적 윤리학은 이성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지만 주로 성경과 계시 그리고 신앙과 전통을 중요시한다. 철학적 윤리가 의무 윤리 혹은 규범윤리라고 말한다면, 신학적 윤리는 계시의 윤리와 은혜의 윤리라고 말할 수 있다¹²⁾라고 하였다.

이 많은 정의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논자는 신학적 윤리학이란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그의 계시를 진리의 궁극적 권위로 인정하고, 말씀을 윤리의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양심의 자유로운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는 윤리를 말한다.

2. 칼빈에게 신학적 윤리학이 있는가의 문제

그렇다면 칼빈에게 신학적 윤리학이 존재하는가? 칼빈은 윤리학을 쓰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자신의 윤리학을 신학적 윤리학으로 말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은 윤리에 대하여 전혀 말하지 않았고, 신학적인 윤리의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당시 오늘날과 같이 윤리학이

11) 김영한, “복음주의 신학과 현대 기독교 윤리: 포트스모던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윤리”, 『복음주의 신학과 기독교 윤리』, 제 32차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논문 발표회 (서울: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1998) p.12.

12) Denise Lardner Carmody & John Tully Carmody, *Christian Ethics: An Introduction Through History & Current Issue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1993), pp.10-12.

신학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 속에는 윤리가 함께 있었다. 교리와 삶은 서로가 상호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칼빈은 신학적 윤리학이 어떤 것인지 자신이 직접 정의하지 않았다. 칼빈은 윤리(ethice)라는 말을 『기독교 강요』에서 쓰지 않았다고 하면서, 단지 도덕(moralia)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강요』에서 17번 사용했고, 윤리와 관련된 순종(obedentia)이라는 용어는 215번 사용했다고 한다.¹³⁾ 따라서 이런 단어들의 사용은 칼빈에게 윤리라는 개념과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실제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de vita hominis christiani*)¹⁴⁾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윤리학적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윤리에 대한 칼빈의 서술은 그의 십계명 해설에서 잘 나타난다. 칼빈은 펠라기우스가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주장과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구원을 위해 율법 준수를 주장한 기존의 잘못된 견해들을 벗어나서 그의 윤리학의 기초로서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발전시켰다.¹⁵⁾ 또 십계명에 대한 설명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II, 8, 1-59), 교리문답(질문 132-233),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대한 설교에 나타난다.

칼빈의 윤리학을 신학적으로 보는 근거는 칼빈의 윤리는 자신의 윤리적인 내용이 자신의 신학적 입장과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며 자신의 윤리적인 견해를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실제적인 삶과 연결하여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윤리는 신학적 해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 올바른 자신의 신학적 윤리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

스토크(H. G. Stoker)는 칼빈의 윤리를 신학적으로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칼빈의 윤리학이 근본적으로 신학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¹⁶⁾ 칼빈은 하나

13) Merwyn S. Johnson, "Calvin's Ethical Legacy," in *The Legacy of John Calvin*, ed. Calvin Studies Society (Grand Rapids : CRC Product Services, 2000), p.63.

14)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2, eds., Guilielmus Baum, Eduardus Cunitz and Eduardus Reuss (Brunsvigae: C. A. Schwetschke, 1864), 501. 안명준, p.13. 재인용 이후로는 CO로 표시함.

15) Gordon H. Clark, "Calvinistic Ethics" *Bak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ed. Carl F. H. Henry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8).

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덕적 원리들(the principles of morality)을 분명하게 끌어냈지만, 어떤 윤리적인 체계(any ethical system)는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¹⁷⁾ 이렇게 칼빈에게 있어서 윤리적 원리들은 있지만 윤리적인 체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 위크(J. H. Van Wyk)와 세베리진(Jseverijn)은 칼빈의 신학을 대체로 윤리적인 구조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¹⁸⁾

칼빈은 철학자들의 윤리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중심적 윤리를 주장한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본성을 윤리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칼빈은 이런 인본주의적인 윤리관을 배격하고, 오히려 인간의 부패성과 나약성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적 윤리의 특성을 보여준다. 또 그의 윤리학은 신학의 여러 주제와도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 가령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성령의 역할, 율법의 제 3의 용법,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전적인 타락, 종말론, 기독교론, 섭리론 등등에서 보여 진다. 따라서 그의 윤리학은 신학적 윤리학으로 말할 수 있다.

칼빈이 인간의 응답보다는 하나님의 힘과 임재의 우선권을 강조하는 점에서 그가 신학적 윤리학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또 칼빈의 신학적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좋은 선물을 제공하시는 창조자이시며 자연과 역사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현재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밝혀 주시는 구속주이다.¹⁹⁾ 칼빈에 있어서 신학적 윤리학의 목적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데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칼빈의 윤리학이 신학적이라는 근거는 칼빈이 교리와 기독교인의 삶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윤리가 교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안에서 성장한다.²⁰⁾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리에서 나온

16) H. G. Stoker, "Calvin and Ethics," in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Jacob T. Hoogsta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59).

17) Ibid.

18) J. H Van Wyk, "Calvin on the Christian Life," in *Our Reformational Tradition*, ed. Institute for Reformational Studies (Potchefstroom : Potchefstroom University of CHE,) p. 231. Cf. J. Severijn, *Geschiedenis der Ethiek* (Kampen : J. H. Kok, 1940).

19) "Theological Ethics," *Encyclopedia of the reformed Faith*, Donald K. McKim, ed. (Louisville :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다고 말한다.²¹⁾ 이것은 그의 주장한 교리가 기독교인들의 실제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²²⁾

이렇게 볼 때 칼빈에게는 윤리학이 존재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윤리학은 철저하리만큼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칼빈의 윤리를 신학적 윤리학이라고 정의해야만 할 것으로 본다.

3.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

앞에서 칼빈의 윤리학이 신학적이라는 것을 몇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였다.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칼빈 자신이 신학적 윤리학에 대하여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작품에 나타난 신학적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의 신학적 윤리학을 구성해 보려고 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3권 6장에서 자신의 윤리적인 규칙에 대하여 언급한다. 물론 자신은 이것을 신학적 윤리학이라는 말로서 서술하지 않지만 2권 6장의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그 주제에 대한 설명에서 칼빈은 성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떻게 규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시작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칼빈은 기독교인의 삶의 보편적인 규칙을 말한다.²³⁾ 칼빈은 자신의 신학적 해석학에서 간결성과 용이성을²⁴⁾ 사용한 것처럼 윤리적인 보편적 규칙 또한 자신의 견해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를 원치 않고 간결한 방법에 의해서 소개한다.

칼빈은 자신의 보편적인 규칙을 철학적 방법과 전혀 다른 성령에 의한 순

20) J. H. Van Wyk, "Calvin on the Christian Life," p.231.

21) CO 2. 505.

22) 신복윤, "칼빈의 윤리관", 『신학지남』36/3 (1969), p.44.

23) CO 2. 501.

24) 칼빈의 신학적 해석학의 핵심으로서 간결성과 용이성에 관한 연구는 본인의 논문 *Brevitaset Facilitas : A Study of a Vital Aspect in the Theological Hermeneutics of John Calvin* (Ph.D. diss., University of Pretoria, 1998), 그리고 "The Ideal of Vrevitaset Facilitas : The Theological Hermeneutics of John Calvin," *Skrif en Kerk*, 20/2 (1999): 270-81. 마지막으로 "칼빈의 신학적 해석학: 간결성과 용이성의 방법론", 『생명복제와 개혁신학』, 한국개혁신학회 논문집 제 7권 (서울 : 한들 출판사, 2000), pp.208-35.

종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설명한다. 윤리와 관련하여 칼빈이 철학에 대하여 갖는 태도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나타난다. 칼빈은 철학자들이 올바른 것과 존경할 만한 것들에 제한을 두고 개인의 의무와 많은 덕목을 이끌어 낸다고 한다.²⁵⁾ 칼빈은 삶의 가르침에 관하여 철학적 윤리(*philosophiam moralem*)을 말할 때 한마디로 인간이 본성대로 살라는 것이라고 한다.²⁶⁾

씨세로는 인간의 자연적인 존엄성(*hominis naturalem dignitatem*)을 강조했지만, 칼빈은 이런 인간의 존엄성은 한계가 있기에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한 변화를 주지 못하며 심령이 새로워지지 못함을 말한다.²⁷⁾ 칼빈은 철학자들이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 생명으로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성만을 사람 안에 있는 지배 원리로 설정하고 이성의 소리만을 따르라고 한다고 한다. 또 그것은 어떤 방법적으로 이성화된 이론을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non ita exacte nect perpetuo methodicam rationem observavit*, CO 2.1)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기독교 철학은 성령에게 양보하며 항복하며 복종하라고 이성에게 명령한다고 한다.²⁸⁾ 여기서 칼빈이 말한 기독교 철학은 기독교 윤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이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성령에 의해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란 더 이상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살며 또 그가 지배하시는 것을 들으며 사는 것이라고 한다.²⁹⁾ 칼빈에 따르면 윤리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칼빈은 철학적 윤리와 달리 자신의 신학적 윤리학의 또 다른 기초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사건을 말한다. 이것은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이런 화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도덕으로 사는 것보다도 우리는 올바른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칼빈은 이런 견해를 성경에서 가져 왔다. 따라서

25) CO 2. 502.

26) CO 2. 503.

27) CO 2. 504.

28) CO 2. 506.

29) CO 2. 506.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며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 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한다.³⁰⁾

칼빈은 자신의 신학적 윤리학의 기초로서 주님의 법을 말한다. 칼빈은 인간 생활의 질서를 위하여 가장 잘 마련된 방법을 주님의 율법이 제공한다고 한다. 이어서 그는 말하기를 하늘 교사(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 율법에 제시된 준칙과 부합하도록 더욱 명백한 계획에 따라서 인도하는 것을 좋게 보셨다 라고 한다.³¹⁾ 여기서 칼빈은 주님의 법을 인간의 삶을 질서 있게 세우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배열된 방법으로 말한다. 즉 그의 신학적 윤리학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이어서 칼빈은 그 법안에 그 규칙(regulam)을 만들었다고 한다.³²⁾ 그리고 이런 규칙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라 한다.³³⁾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생의 목적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즉 중생의 목적은 크리스찬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크리스찬의 순종 사이에 조화와 일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말한다. 여기서 칼빈은 율법의 제 3의 용법을 말한다. 즉, 하나님의 뜻으로서 율법에 대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순종과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가르침을 받아야 함을 보여준다. 칼빈은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신성한 힘이 내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칼빈은 우리는 우둔하여 많은 도움도 필요하고 또 잘못된 길에 들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성경 본문들을 근거로 기독교인의 삶의 행동을 위한 패턴을 정립해야 한다.³⁴⁾

칼빈에 있어서 신학적 윤리의 동기는 하나님의 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분이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삶의 준칙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의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³⁵⁾ 칼

30) CO 2. 503.

3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Michigan :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3). III. 7.1. 이후로는 Inst.,로 표시함

32) CO 2. 506.

33) CO 2. 506.

34) CO 2. 501.

빈의 신학적 윤리학은 하나님의 소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신학적 윤리학의 동기는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새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보여준다. 여기서의 소명은 그리스도인의 직업에 대한 소명이 아닌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의 거룩함, 곧 성화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칼빈이 말하고 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여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이란 무엇인가라고 정의 내린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의 원리들

지난 II장에서 칼빈의 윤리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칼빈이 신학적 윤리학을 형성하는 원리, 즉 신학적 윤리학의 원리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윤리에 대한 견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로서 몇 가지의 요소들이 나타난다. 그의 신학적 윤리학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며 균형 있게 삼위 일체 하나님을 강조할 뿐 아니라,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신학적 윤리학의 올바른 기초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제 몇 가지 원리들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윤리적 인식의 근거인 성경

칼빈은 성경이 신앙과 행위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주장하였다. 성경은 칼빈의 윤리사상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며, 윤리의 근원이 된다. 성경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무오

35) CO 2. 502.

한 말씀이며, 그 기원을 하늘에 두고 신적 권위로 주어진 책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확실하며 진정한 필기자”로 보았기 때문이었다.³⁶⁾

칼빈에 의하면 성경은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이다.³⁷⁾ 오히려 교회는 그 기초를 성경에 두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 자체의 진리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³⁸⁾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에 앞서지 못하며 오히려 이 성경 말씀에 예속 되어야 한다. 칼빈의 제네바 신앙고백서(The Genevan Confession)는 그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원리”와 윤리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준다.³⁹⁾ 칼빈은 우리가 성경만을 믿음과 종교의 규칙으로 따른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오직 성경이란 권위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성령에 의해 구술되었기 때문이다.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원리”는 성령의 영감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스스로가 권위를 갖는다. 칼빈에게 있어서 말씀 중심적인 그의 윤리의 특징은 분명히 나타난다. 칼빈의 윤리는 성경적인 윤리이며, 말씀은 윤리 체계 안에서 결정적인 요소이며 말씀은 모든 영역과 삶의 분야에 적용이 된다.⁴⁰⁾ 칼빈이 그의 신학적 윤리학의 방법으로 성경 중심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바로 윤리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칼빈은 즐거움이나 우리에게 필요를 위한 것에 대해 주의 말씀이 방침을 정한 것이었다고 말함으로써 그의 윤리학을 성경 중심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⁴¹⁾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학의 원천이었을 뿐 아니

36) *Inst.*, III . 8.9.

37) *Inst.*, I 7.1.

38) *Inst.*, I 7.2.

39) “*The Genevan Confession(1536)*”,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ed J.K.S. Reid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54), p.26.

40) J.H.Van Wyk, “Calvin on the christian Life,” pp.267-268.

41) *Inst.*, III. 10.1.

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즉, 윤리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었다. 다른 어떤 권위와도 비교가 안 되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근원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위한 윤리적 방향과 도덕적 안내를 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2. 하나님 중심적 윤리

칼빈의 윤리사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개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⁴²⁾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창조주이며 전능하신 통치자 이시다. 만사는 그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를 양육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인간은 자신의 선행으로 상을 받으며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 같지만, 상을 주시며 공의로 벌을 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칼빈은 자신의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한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생활의 핵심으로서 자기 부정을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말한다.⁴³⁾ 여기서 칼빈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말한다.⁴⁴⁾ 이어서 칼빈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⁴⁵⁾라는 말을 세 번 사용하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Dei sumus*)⁴⁶⁾라는 말은 두 번 표현한다. 칼빈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그의 지혜와 그의 뜻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한다. 또 오직 그 분만을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분만을 향하여 경주하도록 노력하라고 한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님을 배우고 자기의 이성에서 지배권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욕을 위해서 살지

42) Georgia Hankness, *John Calvin ; The Man and His Ethics* (New York ; Aberydon Press, 1958), p.69.

43) CO 2. 506.

44) CO 2. 505.

45) CO 2. 506.

46) CO 2. 506.

말고 모든 능력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⁴⁷⁾

칼빈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gloriam Dei*)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살며, 하나님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한다.⁴⁸⁾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성별되어 바치어져, 금후로는 그의 영광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며 명상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거룩한 것을 속되게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현저한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고전 6:19 참조) 주의 것이라면 멀리 피해야 할 오류가 무엇이며, 일생의 모든 행동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는 분명하다.⁴⁹⁾

결국 칼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다. 썬어(C.G.Singer)는 말하기를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신학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활동의 통치 원리이다.⁵⁰⁾ 또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사회의 복지에 공헌할 수 있다고 한다.⁵¹⁾ 칼빈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말한다.⁵²⁾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예증하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적인 존재의 동기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⁵³⁾ 손봉호 교수는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 사상은 사람의 구원조차도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함이다. 여기서 개종 이전 인문

47) CO 2. 506.

48) CO 2. 505.

49) *Inst.*, III. 7.1.

50) C. Gregg Singer, “Calvin and the Social Order,” in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228.

51) *Ibid.*

52)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s. Peter Barth and Wilhelm Niesel. vol. 1 (Munich: Kaiser Verlag, 1962), p. 363-64. 이후로는 OS로 표시함.

53) OS 1. 363-64.

주의자 칼빈과 개종 이후 기독교 신학자 칼빈의 근본적인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문예 부흥에서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목적이라면 종교 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요 목적이며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수단에 불과하다.⁵⁴⁾

결국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라는 그의 철저한 하나님 주권 사상이 그의 신학적 윤리학에 드러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⁵⁵⁾

3. 그리스도 중심의 윤리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에 있어서 또 하나의 원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윤리로서 이것은 그의 십계명 해석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율법과 복음의 철저한 구별을 주장한 루터에게는 이 둘 사이에 있어서 연결되는 개념은 거의 약하다. 그러나 루터와는 달리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복음은 통일성이 있다고 한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적이라고 한다.⁵⁶⁾ 칼빈은 십계명은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성취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최고의 해석자라고 말한다.⁵⁷⁾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의 기초로서 율법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의 신학적 윤리학의 원리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을 보여준다.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연구한 글이 많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최근 미국 얼스킨 신학교의 존슨(M.S. Johnson)이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에서 칼빈의 윤리학을 미국 칼빈 학회에서 발표하였다.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칼빈의 윤리를 한마디로 참여의 윤리(ethic of participation)로 보았다. 존슨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칼빈의 주장

54) 손봉호, “칼빈의 사회사상”, 자료출처 <http://plaza.snu.ac.kr/~bongson>

55) 칼빈의 신학적 윤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에 대한 연구로 John H. Leith, *Jho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Louisville :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56) Comm. on James 1: 25.

57) *Inst.*, II. 8.26.

을 근거로 참여의 윤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의 그리고 전진하는 삶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⁵⁸⁾ 그러나 존슨은 칼빈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응답하는 응답의 윤리(an ethic of response)를 배제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현재의 활동을 현재 순간에 찾아야 하는데, 바로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발견된다고 한다.⁵⁹⁾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삶이란 자연주의적인 이성적, 의지적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복종이라는 기준에 먼저 놓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의 윤리는 그리스도 중심적 이라고 말할 수 있다.⁶⁰⁾

4. 성령 지배의 윤리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함으로써 인간의 죄에 대한 부패성과 참된 선을 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을 주장한다. 이런 그의 인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그의 윤리학에도 철저하게 나타난다. 칼빈은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 내세운다. 따라서 그의 신학적 윤리학을 이해하는데 성령으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함을 말한다.⁶¹⁾ 특히 거듭나지 못한 이성의 주도권을 반대한 칼빈은 성령에 의해서 완전한 변화란 심령으로 새롭게 된 것으로 본다. 또 그는 철학자들이 이성의 지배를 주장하는 것에 비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이 전적으로 성령께 순종할 것을 주장한다.⁶²⁾ 우리가 성령에게 전적으로 의존 할 때 성령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칼빈

58) Merwyn S. Johnson, "Calvin's Ethical Legacy," in *The Legacy of the Calvin*, pp.63-83.

59) *Ibid.*, p.69.

60) 박충구, 「기독교 윤리사」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00), p.222.

61) *Inst.*, III. 7.1.

62) *Inst.*, III. 7.1.

은 말한다.⁶³⁾

윤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자연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를 가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며 기독교인의 삶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본다. 성령의 신학자 칼빈은 성령의 지배를 강조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며 지배하시는 것이라고 한다. 칼빈은 철학자들이 이성에 따라 윤리적인 방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안하무인격이며 자기들의 덕을 추구하는 것으로 비판한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은 성령 지배의 윤리라고 할 수 있겠다.

5. 성경 해석을 중요시한 윤리

칼빈은 윤리학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해석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칼빈의 신학 역시 그의 해석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학과 연결되고 신학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신학에 있어서 해석학적인 역할이 학자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칼빈은 루터와 더불어 신학에 있어서 해석학의 중요성과 그 자신의 해석학적 방법을 『기독교 강요』와 주석들 특히 로마서 주석에서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칼빈은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교리를 만들고 잘못된 교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한다고 본다. 칼빈은 도나투스파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잘못된 확신을 가짐으로써 위정자와 말썽을 일으키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지적한다.⁶⁴⁾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상과 공로 사상에 대한 견해는 잘못된 해석에서

63) *Inst.*, III. 18. 6.

64) *Commentary on Matthew 5: 12*, in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 Vol. 1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이후로는 *Comm. on Matt.*로 표기함.

근거한 것으로 비판한다.⁶⁵⁾ 그는 재세례파 사람들이 단어 하나를 물고 늘어지며, 문맥을 무시한다고 지적한다.⁶⁶⁾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칼빈은 성경을 해석하여 윤리적인 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의 예리한 해석학적 자세를 발견할 수 있다.

칼빈은 성경에 나타난 보편 원리를 제시하며, 인간 이성에 의한 해석보다는 성경의 조명에 의한 이해를 강조하며, 성경 저자의 의도를 찾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율법의 최고의 해석자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윤리의 해석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칼빈은 율법이 우리의 생활의 규칙이라고 보면서 우리는 율법이 사람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그 해석에 따라 고찰해야 함을 말한다.⁶⁷⁾ 칼빈은 문자적 해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특히 율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율법의 외형적 문자적 적용을 말하는 바리새파를 비판하면서 성경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고 한다.⁶⁸⁾ 여기서 그는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한다. 특히 바리새파는 성경의 단순한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숨겨진 의미를 알지 못하며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율법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완전한 해석자들이 아니라고 한다.⁶⁹⁾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목표를 가르치는 성실한 해석자로(a faithful expounder) 칼빈은 말한다.⁷⁰⁾ 칼빈은 율법 해석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둘째 소견은, 명령과 금지에는 말로 표현된 것 이상의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원칙을 조절해서 레스보스 섬의 잣대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함부로 곡해해서, 무슨 해석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 그들은 이렇게 함부로 다름으로써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율법의 권위를 떨어뜨리며, 또

65) *Comm. on Matt.* 5: 12.

66) *Comm. on Matt.* 5: 12.

67) *Inst.*, II 5. 7.

68) *Comm. on Matt.* 5: 22. Cf. *Comm. on Matt.* 5: 40.

69) *Comm. on Matt.* 5: 21.

70) *Comm. on Matt.* 5: 21.

어떤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이해할 희망을 부수어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똑바르고 확실하게 걸어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해석이 어구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옳은가를 탐구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 사람이 설명을 덧붙인 해석이 되지 않고, 입법자의 순수하고 진정한 뜻을 충실히 나타낸 해석이 되게 해야 한다. 분명히 계명들은 거의 전부가 명백한 제유법(또는 부분적 표현법)이 사용되었으므로, 율법 해석을 언어의 좁은 범위 내에 국한하려는 사람은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건전한 율법 해석은 언어의 범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⁷¹⁾

칼빈은 여기서 몇 가지의 중요한 것을 제시하는데 첫째로, 율법 해석에서 있어서 본문에 표현 언어 그 자체에 지나치게 얽매어 말씀을 함부로 왜곡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두 번째, 칼빈은 율법에 인간의 설명을 덧붙이는 해석을 반대한다. 이렇게 될 때 흔히 말하는 알레고리식으로 해석이 된다. 세 번째, 칼빈은 율법의 저자인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해석이 될 것을 요구한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 오직 거듭난 영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 저자의 의도 곧 하나님의 의도를 참으로 이해 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해석에 있어서 칼빈의 신학적 교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칼빈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되었음을 말한다.⁷²⁾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5:8의 주석에서 칼빈은 타락한 인간을 자연인이요 어두움이라고 불렀다. “어두움은 중생하기 이전의 모든 자연인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추지 않고, 오직 두려운 어둠만이 있기 때문이다.”⁷³⁾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향하기 전에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간은 죄와 어두움 아래 있게 된다. 칼빈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죄 아래 있는 자연인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의 영적 진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육

71) *Inst.*, II 8. 8.

72) *Inst.*, II 1. 11.

73) *Comm. on Eph.* 5:8.

은 하나님의 영으로 조명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결코 깨달을 수 없다.⁷⁴⁾

칼빈은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 이성은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인간 이성의 빛은 어두움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본성의 타락이 인간 이성을 질식시킨다고 칼빈은 생각하였다.⁷⁵⁾ 우리는 올바르게 생각할 자격이 없다. 우리의 이성적 기능은 비참하게 타락하였다.⁷⁶⁾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성은 단지 헛된 것이 될 것이다.⁷⁷⁾ 칼빈은 말하기를 복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명석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한다.⁷⁸⁾ 칼빈은 지적하기를 심지어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의 이성을 의지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⁷⁹⁾

칼빈은 믿음의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은 해석의 인간적 과정을 지배한다고 말한다. 인간의 불안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한다고 한다. 칼빈은 성령은 우리의 정신으로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⁸⁰⁾ “성령의 힘에 의하여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한다면 그 마음은 성령에 의하여 조명을 받을 수 없다.”⁸¹⁾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지 않는다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서 사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⁸²⁾ 칼빈은 1545년 제네바 교회 교리 문답서에서 우리의 마음과 성령의 조명과의 관계성을 말한다.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의 생각은 너무 오만하여

74) *Inst.*, II 2. 19.

75) *Comm. on Eph.* 4:17.

76) *Comm. on Jn.* 1:5.

77) *Comm. on Ex.* 25:32.

78) *Comm. on Col.* 2:2.

79) *Comm. on Jn.* 20:29.

80) *Comm. on Ps.* 143:10.

81) *Inst.*, III 2. 33

82) *Comm. on Is.* 53:3.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파악할 수 없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그것이 계시되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⁸³⁾

IV.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의 특징

지난 III장에서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의 원리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것은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감사와 복종, 내세의 삶을 명상함, 마지막으로 현재의 삶을 활용하는 방법을 주제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1. 자기부정

칼빈의 윤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사실은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성과 의지가 우리 자신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위해서 죽도록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뜻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생애의 모든 분야가 유일하며 정당한 목표인 하나님을 향해서 매진하게 하자”⁸⁴⁾ 또한 칼빈은 계속해서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전체 능력을 바쳐 주님을 섬기는 데 해야 할 첫 단계는 자신을 떠나는 일이다. 그리스도교 철학은 이성이 그 자체를 성령에게 양보하며 복종하기를 요청한다. 그래서 사람

83) “The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p.105.

84) *Inst.*, III,7. 1.

은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며 다스리는 것이다".⁸⁵⁾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며 그의 영광의 중진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관심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관심사에서 떠나라고 교훈하면서 소유욕과 권세욕, 그리고 인간에 대한 호의를 마음에서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영광을 위한 갈망과 야망을 뿌리째 뽑아 버리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생애를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한다.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주님의 요구하시는 것들을 전심으로 구하며 따라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치료약이 없는 것이다. 바울은 율법의 두 돌비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의 본성을 버리고 이성과 의지가 원하는 것들을 부인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세 가지로 제한하였다. 즉, 근신과 의와 경건하게 살라"는 것이었다.⁸⁶⁾

칼빈의 윤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 데 있다. 그는 이 사실을 이런 말로 요약하였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모든 선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는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팔리셨기 때문이며, 우리가 포로 되었을 때 구해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다".⁸⁷⁾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은 역시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근본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 계시하시고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내신 하

85) Inst., III, 7. 1.

86) Comm. on Titus 2: 11-14.

87) *Preace to Olivetan's New Testament, in Calvin: Commentaries, ed. by Joseph Haroutunian and Louis p. Smith, 1958, p.58.*

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⁸⁸⁾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본성에 따른다”는 스토익 주의(Stoic) 생활 이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결과이며, “자아 부정”인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모든 행동을 자아 부정으로 이해하였다.⁸⁹⁾

이렇게 볼 때 자기 부정이란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만을 추구하는 것이 칼빈의 신학적 윤리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2. 십자가를 지는 것⁹⁰⁾

칼빈은 경건한 심령의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한다”고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곳까지 보다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만 한다. 주님이 선택하셨고 그와 교제하는 영광은 받은 자들은 험겁고

88) Inst., III, 6, 3.

89) Inst., III, 7, 2.

cf)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나용화 역, (서울 : C. L. C, 1988), pp.73-92.에서 자기부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기 바란다.

1.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에 있어서 내적 외적 국면
2. 자연적 자아의 전적 악화인 정욕
3. 기독교인의 자기 부인을 자신의 본성 및 이성과 항상 충돌을 빚음
4. 이기적 사랑 대신 자아 증오
5. 자기 부인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
6.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인 자기부정
7. 성령의 사역인 자기부정

90) cf) 명 신흥, “칼빈의 윤리 사상” 「신학 지남」 1962, pp.274-5.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부정의 일부이다.
2. 십자가는 고통과 수고와 죽음을 의미한다.
3.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4. 십자가는 그 고통을 인하여 인내를 가져온다.
5. 십자가는 복종함의 훈련을 주기도 한다.
6. 십자가는 육체를 따라 방종 생활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도가 된다.
7. 십자가는 징계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고되며, 불안한 삶, 즉 온갖 형태의 악으로 팽배한 삶을 살 준비를 해야 한다. 자기 백성을 시험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을 단련시키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장자(長子)인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 일을 계속하신다. 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소중하였지만 관대하게 대우 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상에 거하는 동안 주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예속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전 생애가 일종의 종신(終身)의 십자가에 불과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생각은 사악하게 되는 어려운 역경에 처해있는 우리에게 대단한 위안을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수많은 적들의 미로를 통과하고 하늘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온갖 고난을 통해서 그곳에 인도된다는 생각도 큰 위로가 된다.91)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필요가 있었던 유일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복종을 증거하고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부연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가 항상 십자가 밑에서 살 것을 요구하는 많은 이유들도 있다. 우리는 본성상 연약하면서도 우리의 육신에 모든 완전함을 부과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의 육신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나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덕을 적당한 가치 이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이러한 미덕은 모든 장애에 부딪쳐도 손상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어리석고 공허하게 육을 확신하는 일에 몰두해 있고 그리하여 마치 우리 자신의 재능이 주의 은총 없이도 충분했던 것인 양 육에 대한 확신으로 주님께 대항하다 교만을 키우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치욕, 빈곤, 사별, 질병 혹은 다른 고통에 빠지게 하셨다.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모두 지탱할 수 없다고 느끼는 즉시 우리 자신은 무너지게 되고 겸손히 주님의 능력에 호소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고통의 상태를 견딜 수 있게 해 준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고통당하게 하시는 또 다른 목적은

91) Waldo Beach & H. Richard Niebuhr, *Christian Ethics*. 「기독교 윤리학」, 김중기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5), p.250.

그들의 인내를 시험하여 그들이 복종하도록 훈련시키는데 있다.⁹²⁾

우리가 의(義)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유일한 안식이 있다. 주님이 그의 군병이라는 특수한 표징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예가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그때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단의 꾀술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거나 혹은 악의 피해에 대하여 선(善)과 결백함을 방어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공격과 미움을 초래하게 되어 인생이나 행운이나 명예가 위태롭게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한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주님이 그 자신의 입술로 직접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들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비참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⁹³⁾

이렇게 볼 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적 삶을 위한 특징인 동시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칼빈의 신학적 윤리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이다.

3. 감사와 복종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기독교인은 이제 과거의 윤리적 삶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명령 아래 서게 된다.⁹⁴⁾ 칼빈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 포기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며 이러한 삶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이에게 주어진

92) Ibid.

93) Inst., III, 1. 2. 4. 7.

cf., Ronald's Wallace, pp. 93-103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참고하기 바란다.

1. 십자가 아래에서의 외적 고통에 의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교회가 본받음.
2.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및 그의 죽음에서 성례전적 관계를 교회가 가지게 됨.
3.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유력한 조력이요, 순종의 시금석이다.

94) 박충구, p.222.

자기의 이해라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삶에로의 부름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기독교의 현실에 근거한다. 인간의 행위와 선행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미리 예정하신다는 예정론은 몇 가지 중요한 이해의 관점을 필요로 한다. 스텔린(E. Staehlin)은 칼빈의 예정의 교의가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첫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고,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할 힘이 없음을 자각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의와 공적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므로 이에 대립하여 그 은총을 바르게 인식하려는 노력에서 셋째, 구속과 영원한 진리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교사인 성성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⁹⁵⁾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인류 각 개인의 형성에서 그 원하시는 바를 결정할 때 준거하는 그의 칙령이다.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운명으로 창조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받도록 미리 정하여졌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목표로 하여 창조되었다⁹⁶⁾고 정의하였다.

저주를 향한 자와 구원을 향한 자의 운명은 이중적인 구조 속에 이미 작정되었다는 이 이중 예정론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결과를 불러왔다. 멸망과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과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베버는 이러한 칼빈주의적 특징이 동반하고 있는 윤리적 성격이 기독교인의 영적인 귀족의식, 즉 선민으로서의 의식을 불러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근대 자본주의를 형성하게 한 정신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⁹⁷⁾ 이는 칼빈의 신학이 타 세계적으로만 초월하는 하

95) E. Staehlin, *Johannes Calvin: Leben und ausgewählte Schriften* (Elberfeld, 1863), p. 273f.

96) *Inst.*, III, 21. 5.

97)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ew York: Charles

나눔에 대한 카톨릭적 이해를 현 세계 속에서 활동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 현실 세계를 강하게 수납해 들이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이상의 다른 관계를 거절하는 종교적 개인주의를 초래하도록 한 것에 그 연유가 있다고 생각된다.⁹⁸⁾ 베버가 본 것은 현세적 성공과 번영을 하나님의 은총이며 선택 받은 자의 삶에 대한 보상적 의미로 해석하는 논리는 칼빈의 예정론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삶은 결국 감사와 복종의 윤리를 기독교인의 삶의 중요한 윤리적 규범으로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⁹⁹⁾

칼빈에게 있어서 감사와 복종의 윤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신교적 윤리는 칼빈의 윤리 사상을 포함하여 인간의 편에서 선을 행하며, 인간 편에서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논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사와 복종의 윤리란 응답의 윤리이며, 따라서 책임의 윤리인 것이다. 칼빈은 감사와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지침은 바로 성경이며 성경적 기준을 벗어난 모든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복종과는 다른 윤리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을 규명하고, 기독교인의 삶을 지도하는 역할은 제도로서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여겼다. 이런 점에서 보다 이상적인 교회로서의 개혁을 교회 공동체의 근본 특징으로 하고 있는 칼빈은 루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화된 교회론을 확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루터의 주된 관심은 만인 제사장적인 기독교인의 자유였으며, 이는 제도적 교회였던 카톨릭 교회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칼빈의 경우 기독교인의 자유를 루터처럼 정체적인 것이라거나 혹은 낙관적인 것이라고는 이해하지 않았다. 그 결과 루터는 세속적인 정부와 교회 공동체의 자율적인 삶을 인정하였지만 칼빈은 기독교인의 자유를 자율성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에 의존되어 있는 자유로 보았다. 사실상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의 자유

Scribner's Sons, 1976)

98) N. J. Demerath III & Phillip E. Hammond, *Religion in Social Context* (New York : Random House, 1969), p. 85.

99) 박충구, p.224.

는 성경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삶을 조명해 주는 최상의 권위는 곧 성경이며 성경에 따른 거룩한 삶과 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칼빈의 성화의 윤리와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그의 이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칼빈은 기독교인의 감사와 복종의 삶은 이성적 자율성이나 판단에 의존된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성서적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요구라고 생각한 칼빈은 신·구약 성경을 모두 강조하였던 것이다.¹⁰⁰⁾ 성서적 기준에 따른 삶이란 거룩한 성화의 삶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며 동시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임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된 모든 사람 즉, 거룩한 백성들의 교제를 뜻하였다.¹⁰¹⁾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선택을 배우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은 이들은 공동적으로 감사와 복종의 윤리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신념이었다.

4. 내세의 삶을 명상함¹⁰²⁾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을 위한 근거와 비결로서 내세의 삶을 명상해야 한다는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형태가 어떠한지 간에 우리는 현재의 삶을 무시하도록 그리하여 미래의 삶을 열망하도록 자극받기 위하여 언제나 고난의 결말에 유념해야 한다. 현재의 삶이란 그

100) Ernst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s of the Christian Churches* (Chicago: Chicago Up, 1960), p.586.

101) *Inst.*, IV, 1, 1. & 3.

102) cf.) Ronald's Wallace, pp. 115-122.

“내세의 삶을 명상함”을 “미래의 천국 생활에 관한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1. 기독교 생활의 초점과 영감인 승천하신 그리스도.
2. 기독교 생활은 미래 생활을 힘써 지향함.
3.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 것이 자국이 되어 미래 생활을 묵상하게 됨.
4. 묵상에는 묵상, 열망, 신앙이 포함 됨.

자체를 평가해 볼 때 불안하고 혼동된 것이며, 여러 관점에서 볼 때 비참한 것이고 어떤 관점에서든 행복하지 못할 뿐이며, 엄청난 악의 침투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식으로 십자가의 훈련으로 도움을 받게 된다. 요컨대 우리가 여기 현세에서 추구하거나 희망하는 모든 것은 투쟁인 것이며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을 생각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¹⁰³⁾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의 삶을 무시하는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세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고 열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앙인이 스스로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삶에 대하여 느껴야만 될 무시의 감정이 현재의 삶에 대한 일종의 증오심을 낳거나 혹은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을 낳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삶이란 온갖 형태의 비참함으로 만연되어 있지만 무시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로 정당하게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공공연하게 영원한 영광의 유산을 드러내시기 전에 사소한 증거 즉 그가 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에 의해서 그 자신을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이와 같이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라면 마치 그것이 하나의 특정한 선(善)도 내포하지 않는 것인 양 격멸할 수 있겠는가? 현세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준비하는 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숙고해 보면 훨씬 더 고상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결국 하늘에서 상급을 받게 될 자들은 지상에서 투쟁을 계속해야 하며, 그들이 투쟁의 곤경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기까지는 상급을 받을 수 없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우리는 우리의 희망과 바람이 충분히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세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맛보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또 다른 이유이다.¹⁰⁴⁾

천상의 삶과 비교할 때 지상의 삶은 확실히 무시되고 짓밟힐 수 있다. 우리는 실로 현재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굴복하게 하지 않는 한, 그것을 증오스럽게 여겨서는 안 되며 또한 이러한 증오심을 삶 자체를 거부하는 쪽으로 유도해서도 안 된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권태와 증오 속에서도 우리는

103) Waldo Beach & H. Richard Niebuhr, p.251.

104) Ibid.

현재의 삶에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삶의 종말을 바라보고 있을 경우에도 불만스럽고 참을 수 없는 듯한 모든 것을 떨리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속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준수해야 할 직분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¹⁰⁵⁾

5. 현재의 삶을 활용하는 방법¹⁰⁶⁾

칼빈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필요성 보다는 즐거움을 알려 주는데 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필요성에서든지 혹은 쾌락을 위해서든지 간에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사물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용을 지켜야 한다. 다음을 우리의 원리로 삼도록 해야 한다. 즉, 창조자인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들고 운명지은 목적에 관하여 언급할 경우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 실수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善)을 위해서 그 은사들을 창조했기 때문이다.¹⁰⁷⁾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에서 음식을 만드셨는가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도 고려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물의 본질 자체는 어떤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는 그것들이 합법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

105) Inst., III. 1. 3. 4.

106) Waldo Beach & H. Richard Niebuhr, p.252.

cf.) Ronald's Wallace, pp. 160-181.에서 “현실 세계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참고하기 바란다.

1. 현세로부터의 초연.

- 1) 현세에 대한 노예적 사랑인 정욕.
- 2) 이 세상으로부터의 초연과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계.
- 3) 자연과 복음은 다같이 절제, 겸손, 세속에 대한 경멸을 포함함.

2. 현실 세계에 대한 이용과 향유.

- 1) 현실 세계에 대한 통치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회복됨.
- 2) 세속적 환경에 대한 기독교인의 새로운 관계.
- 3) 현실 생활의 은택들은 감사와 신앙으로 사용되고 향유되어야 함.

107) Ibid.

입증해 주고 있다. 주님께서 눈에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이는 온갖 아름다움과 후각을 즐겁게 해주는 향기 나는 냄새로 꽃들을 장식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과 향기를 즐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겠는가? 주님은 어떤 필요한 용도도 지니지 않는 많은 것들에게도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셨는가? 필요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피조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악의를 품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비의 합당한 결실마저 박탈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서 모든 감각을 빼앗고 품격을 격하시키지 않고는 실현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비인간적인 철학에서 손을 떼야 한다.¹⁰⁸⁾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육의 정욕을 전혀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고 제어하지 않는다면 이 정욕은 모든 속박에서 풀려날 것이다. 현재의 삶을 경멸하고 천상의 불멸을 열망하는 것이 내세의 삶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이다. 마치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이용하기 위한 자기 규칙을 세우는 사람은 식사와 음주에 있어서의 모든 과식과 자기 서재나 집 및 옷에 관한 모든 나약함, 야망, 자만과 허영 및 내핍을 버린다. 뿐만 아니라 천상의 삶을 열망하며 자기 영혼의 관심을 고양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관심이나 애정을 제거한다.¹⁰⁹⁾ 그러므로 외재적 사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엄격한 규칙에 얽매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법 — 가급적 적게 즐겨야 한다 — 에 예속해 있다. 나아가 사회를 억제할 뿐더러 넘쳐흐르는 풍요한 모든 의식을 제거하고, 그리고 도움이 장애로 바뀌는 것을 주의 깊게 아는 것이 그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한다.¹¹⁰⁾

마지막으로 준수해야 될 일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삶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소명을 존중할 것을 명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들끓는 불안감,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일어나는 변덕, 그리고 지배욕이나 야심에 있어서 경쟁자들을 붙잡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일들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으로 인해 뒤죽박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각자에게 상이한 생활양식을 통해 명백한

108) Ibid.

109) Ibid.

110) Ibid., pp.252-3.

의무를 할당해 주셨다. 아무도 감히 자신의 적당한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나님은 소명이라는 이름 하에 상이한 생활양식을 구분하셨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생활양식이란 주님께서 각자에게 할당해 주신 일종의 지위인 것이며, 자신이 언제나 멋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의 소명을 따르려는 목적을 향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 사람만이 삶을 올바르게 영위할 것이다. 또한 그가 경솔한 충동을 잘 잘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자기의 소명이 정당시하는 것이상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지위가 낮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적인 생활을 향상시키려고 할 것이다. 행정관리는 자기의 직무를 보다 기꺼이 수행할 수 있으며, 한 가정의 아버지는 그의 적당한 범위 안에서 그 자신을 제안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양식 안에서 원망하지 않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불편함이나 책임, 염려와 불안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짐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당신에게 적절한 소명을 따르는데 있어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영광이나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토록 사소하고 미천한 것도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 놀라운 위로가 될 것이다.¹¹¹⁾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의 특징을 종합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삶인 동시에 이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을 명상함으로 현세의 고난을 극복하고 현재의 삶을 현세와 내세를 연결시켜주는 근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1) Inst., III. 1. 4. 6.

V. 마치는 말

지금까지 논자는 칼빈의 윤리는 철저하게 신학적 윤리였으며 그것은 칼빈 자신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성경에서 자신의 윤리적 원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칼빈은 윤리학을 신학적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오늘날의 윤리적 문제 역시 신학의 전체적 맥락에서 해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논자는 본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오늘날의 윤리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치고자한다.

1. 요약

논자는 한국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윤리적 위기 현상을 문제 제기로 하여, II장에서 그 대안으로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을 제시하고자 했다. 칼빈의 윤리는 철저하리만큼 신학적 윤리를 형성하고 있다. 논자가 내린 신학적 윤리학의 개념은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그의 계시를 진리의 궁극적 권위로 인정하고 말씀을 윤리적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양심의 자유로운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는 윤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 정리처럼 칼빈의 윤리는 그의 걸작 「기독교 강요」와 윤리와 관련된 주석들 속에 산재해 있으며 칼빈의 윤리학을 신학적으로 보는 근거를 칼빈의 윤리는 자신의 윤리적인 내용이 자신의 신학적 입장과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연결하여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윤리는 신학적 해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올바른 자신의 신학적 윤리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6장에서 자신의 윤리적인 규칙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는 성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떻게 규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밝히고 보편적인 규칙을 철학적 방법과 전혀 다른 성령에 의한 순종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설명한다. 칼빈은 철학적 윤

리와 달리 자신의 신학적 윤리학의 또 다른 기초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사건을 말한다. 이것은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화해를 통하여 우리는 올바른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칼빈은 이런 견해를 성경에서 가져왔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며 그리스도의 모범은 우리 생활에서 실천해야만 한다.

Ⅲ 장에서는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을 형성하는 원리들을 소개하면서 첫째 원리는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며 삼위 하나님을 원리로 삼을 뿐 아니라, 성경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신학적 윤리학의 올바른 기초요 원리임을 밝혔다.

즉, 윤리적 인식의 근거로서의 성경은 칼빈에게 있어서 신앙과 행위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성경은 칼빈의 윤리 사상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며 윤리의 근원이 된다. 성경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무흠한 말씀이며 그 기원을 하늘에 두고 신적 권위로 주어진 책 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학의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즉 윤리 문제의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다른 어떤 권위와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근원이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위한 윤리적 방향과 도덕적 인내를 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둘째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 개념은 칼빈의 윤리 사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통치자이시다. 만사는 그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결정 되는 것이다. 칼빈은 신의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권을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신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으로서 자기부정을 말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에 있어서 세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원리이다. 이 원리는 그의 십계명 해석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복음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즉, 그리스도는 율법의 성

취자이시며 동시에 율법에 대한 최고의 해석자라고 말한다.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의 기초로서 율법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신학적 윤리학의 원리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삶이란 자연주의적인 이성적, 의지적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복종이라는 기준에 먼저 놓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원리는 성령 지배의 원리로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함으로서 인간의 죄에 대한 부패성과 참된 선을 행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간임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칼빈의 인간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그의 윤리학에도 철저하게 나타난다. 칼빈은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인간을 하나님앞에 세운다. 그러므로 그의 신학적 윤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다섯 번째 원리는 성경 해석학을 중요시하는 원리로서 칼빈은 윤리학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해석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칼빈의 신학 역시 그의 해석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학과 연결되고 신학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올바른 성경 해석이야말로 올바른 윤리적 삶의 원리가 된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IV장에서는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의 특징들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자기부정으로서 칼빈의 윤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음으로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주님의 요구하시는 것들을 전심으로 구하며,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치료책이 없다고 보았다. 칼빈의 윤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모든 행동

을 자아 부정(자기 부인)으로 이해하였다.

둘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부정의 일부일 뿐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방종한 생활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는 실제적인 근거가 된다.

셋째는 감사와 복종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과거의 윤리적 삶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명령 아래 서게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자유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특성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내세의 삶을 명상하는 것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삶은 하늘나라의 삶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을 무시하는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세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고 열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현세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근원이 내세의 삶을 명상하는 데서 온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현재의 삶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내세의 삶을 명상하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한다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삶을 회피해서는 안 되고, 필요성에 의해서든지 혹은 쾌락을 위해서든지 간에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사물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용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그 은사들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칼빈은 하나의 예를 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에서 음식을 만드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필요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도 고려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다. 사물의 본질 자체는 어떤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는 그것들이 합법적으로 향유 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입증해 주고 있다. 즉 현재의 삶에도 위미와 목적을 부여함으로써 우리의 윤리적 삶에 유익을 안겨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원리들과 특징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영위 할 때 우리는 진정 이 땅위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2. 제언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상황 윤리와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영향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생명공학의 발달로 자연적인 유전자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 칼빈의 신학적 윤리는 이 시대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고 논자는 주장하고 싶다. 그렇다고 신학적 윤리학이 자연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치고자한다.

첫째, 모든 것을 상대화 시키고, 변함없는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현대 사상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칼빈이 그의 윤리의 근원으로 삼았던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장로교 신조 제1조에서 밝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법칙이다”라는 주장대로 성경이 윤리의 유일한 기준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성경 말씀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 즉 다양한 상황과 새로운 문명 시대에 사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삶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로서 성경을 더욱 강조해야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바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다. 따라서 신학적 윤리학에 있어서 성경 해석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Bibliography

국내서적

- 김정오, 「기독교 윤리사상」, (서울: 도서출판 한글), 1991.
- 명신흥, 「개혁파 윤리학」, (서울: 신앙애 출판사), 1971.
- 맹용길, 「기독교 윤리 사상」,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0.
- 박충구, 「기독교 윤리사」,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0.
- 손규태, 「개신교 윤리 사상사」,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8.
-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장홍길, 「신학 성경윤리」, (서울: 장로회 신학 대학교), 2002.

번역서

- Beach Waldo & Niebuhr, H. Richard. 「기독교 윤리학」, 김중기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5.
- Calvin John. 「기독교 강요」, 김종흡 외 3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Hoffe, Otfried. 「윤리학 사전」, 임홍빈 외 2명 역, (서울: 도서출판 예경), 1998.
- Wallace, Ronald. S. 「칼빈의 기독교 생활윤리」, 나용화 역, (서울: C. L. C), 1988.
- Wogaman J. Philip. 「기독교 윤리학의 역사」, 임성빈 역, (서울: 한국 장로회 출판사), 2000.

원서

- Barth Peter and Niesel Wilhelm,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vol. 1 Munchen : Kaiser Verlag, 1962.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3.
- Carmody, D. L. & J. T. *Christian Ethics : An Introduction Through History*

- & *Current Issue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 Hall, 1993.
- Clark Gordon H. “Calvinistic Ethics” *Bak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ed. Carl F. H. Henry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8.
 - Demerath III N. J. & Hammond Phillip E. *Religion in Social Context*. New York : Random House, 1969.
 - Fletcher, Joseph. *Situation Ethics: The New Morality* Philadelphia : Westminster, 1966.
 - Gustafson, James M. *Ethics from a Theocentric Perspective* Vol. 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 Hankness, Georfia. *John Calvin; The Man and His Ethics*. New York; Abrydon Press, 1958.
 - Johnson Merwyn S. “Calvin’s Ethical Legacy”, in *The Legacy of John Calvin*, ed. Calvin Studies Society. Grand Rapids: CRC Product Services, 2000.
 - Mckim, Donald K. *Encyclopedia of the reformed Fait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 Singer, C. Gregg “Calvin and the Social Order”, in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 Staehlin, E. Calvin Johannes: *Leben und ausgewaehlte Schriften* Elberfeld, 1863.
 - Stoker, H. G. *Calvin and Ethics in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edited by Jacob T. Hoogstra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9.
 - Troeltsch, Ernst *The Social Teachings of the Christian Churches* Chicago: Chicago Up, 1960.
 - Van Wyk, J. H. “Calvin on the Christian Life”, in *Our Reformational Tradition*, ed. Institute for Reformational Studies Potchefstroom: Potchefstroom University of CHE.
 - Weber Max,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ew York: Charles Scribner ’ s Sons, 1976.
 - “*The Genevan Confession(1536)*”,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ed J.K.S.

Reid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54.

- “The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 *Commentary on Matthew 5: 12*, in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 Vol. 1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9.

논문 및 잡지류

- 김원배, “윤리의식 피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월간목회」, (2002. 5).
- 김영환, “복음주의 신학과 현대기독교 윤리: 포스트모던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윤리” 「복음주의 신학과 기독교 윤리」, 서울: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1998.
- 명신홍, “칼빈의 윤리사상” 「신학지남」, (29권 1호, 1962).
- 신복윤, “칼빈의 윤리관” 「신학지남」, (1969년 가을호)
- 손봉호, “크리스찬 윤리실천의 현장을 본다” 「월간목회」, (2002. 5).
- 이수종, “크리스찬 윤리의식, 그 수준을 본다” 「월간목회」, (2002. 5).
- 안명준,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 「조직신학 연구」, 서울 : 한국 조직신학 복음주의 신학회, (2002).
- 정하은, “칼빈의 윤리와 현대적 해석” 「신학연구」, (1965).
- 조은규, “마틴 루터의 윤리사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 대학원 석사논문, 1978.
- 최기채, “크리스찬의 윤리의식 왜 파괴되고 있는가” 「월간목회」, (2002. 5).